

"슈퍼 AI, 핵무기만큼 파급효과 커"

ⓒ 이해진 기자 | Ⓞ 승인 2019.11.20 11:34

미래학자 제롬글렌 화장 방한 강연
슈퍼 AI 일정수준 도달하면 통제력 상실
한국, 새기술 변화 적응과정 필요



제롬 글렌 밀레니엄프로젝트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AI)이 만드는 경제·사회의 미래'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출처 = 세계경제연구원)

(AITAIMS=이해진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비슷한 형태의 국제적인 인공지능(AI)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롬 글렌 유엔 밀레니엄프로젝트 회장(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이 만드는 경제·사회의 미래' 강연자로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슈퍼 AI가 핵무기만큼 파급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AI 관련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6년 싱크탱크 '밀리니엄프로젝트'를 세운 글렌 회장은 미래연구 분야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각종 저서나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의 사회를 그려온 그는 AI를 세 가지 종류로 분류했다. 단일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협업 AI', 상황에 적응하며 새로운 일까지 찾아내면 '범용 AI', 스스로 목표를 세우거나 학습할 수 있으면 '슈퍼 AI'로 부르는 식이다.

글렌 회장은 특히 슈퍼 AI에 주목했다. 자칫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는 "언젠가 슈퍼 AI는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AI가 이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글렌 회장은 AI가 스며든 사회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진 않았다.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선제 대응할 경우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다. 그는 "AI로 만들어진 아바타가 인간을 대신해 밤새 일하고, 대신 인간이 부유해질 수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그 시간에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렌 회장은 향후 기술의 발전 양상은 과거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산업혁명에서 정보통신혁명으로 넘어가던 시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와 손쉽게 연결될 수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고민을 실리콘밸리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이아이타임스 aitime 에이아이타임즈】

저작권자 © AI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혜진 기자

뉴스 > 사회

AI시대 최악 시나리오...제롬 글렌, “민주주의·자유시장은 환상으로 전락”

등록 2019-11-19 09:52:50 | 수정 2019-11-20 23:15:07

스티브 잡스·빌게이츠 등 증강 천재가 수십억에 달하는 반대 시나리오도 가능



제롬 글렌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이 19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이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드는 경제·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세계경제연구원 제공)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도를 볼 때 인간이 (AI시대에서) 의미있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건 아닐까요.”

19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이 롯데호텔에서 연 제롬 글렌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 초청 강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다. 이날 글렌 회장은 '인공지능(AI)이 만드는 경제·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40분 이상 강연했다. 강연은 동시통역으로 이뤄졌다.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1996년 창립한 전 지구 규모의 미래연구 두뇌집단이다. 글렌 회장은 밀레니엄 프로젝트 창립자인 동시에 미국 대표를 맡고 있다. 20년 이상 '미래'를 연구해 온 글렌 회장은 강연 40분

동안 극단의 시나리오로 미래를 펼쳤다. 변화는 이미 시작했고 연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지만 그러지 않을 때 마주할 미래는 살벌하다고 경고한다.

AI는 협의·범용·슈퍼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2016년 봄 창외 바둑의 대가 이세돌이 한날 컴퓨터 게임인 줄 알았던 구글 알파고와 맞붙어 다섯 판 중 한 판의 승리만 이끌어낸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동시에 AI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 AI가 협의AI다. 인간의 신경망으로 기계가 학습하는 수준이다.

사람과 훨씬 비슷해지는 걸 범용AI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 협의AI와 범용AI는 개와 인간의 각 뇌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다. 범용AI는 차를 운전하고 암을 진단하고 약속을 잡을 수 있다. 다양한 협의AI를 하나로 합해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 공공 플랫폼에서 공유도 가능하며, 지능은 점점 더 성장한다. AI가 인류를 멸망시킨다고 우려할 때 말하는 AI가 바로 범용 AI다. 협의AI가 범용AI에 이를 수 있을까. 글렌 회장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0~15년 후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슈퍼AI는 인간의 이해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세운다. 범용AI가 슈퍼AI로 발전하는 데 얼마가 걸릴지 예상할 수 없다. 다만 글렌 회장은 “AI가 범용 수준에 도달해 어느 정도 발전하면 인간이 통제권을 잃게 된다”고 전망한다.

글렌 회장은 협의AI만으로도 인간이 많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지만 그나마 보편화까지 시간이 있어 적응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범용AI 시대가 도래하는 데 있다. 그간 역사에서 많은 나라가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는 데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협의AI가 범용AI로 발전하면 실업은 10%에서 최대 50%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정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



제롬 글렌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이 19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이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드는 경제·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세계경제연구원 제공)

세계 금융체계가 고령 사회를 지원하지 못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 질서가 퇴보할 수 있다. 초대형 다국적 기업이나 범죄조직의 매출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범죄조직 수익이 향후 3~4조 원에 달해 웬만한 나라의 군비를 합친 것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정도면 오히려 범죄조직이 소프트웨어 관련 인재를 유치하기 쉽고 NT를 추구할 자원을 갖게 된다. NT(다음 기술·next technology)는 정보통신(IT)이라는 표현으로 담을 수 없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술을 의미하는 말로 새로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글렌 회장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합성생물학으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고 아이큐를 증강한 천재가 탄생하는 식이다.

글렌 회장은 “AI의 발달로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 문제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며, “범죄조직에 테러·부패만이 아니라 여기에 정보전쟁까지 더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은 환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정반대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인류가 AI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가 범용AI 전략을 도입해 기본소득을 어떻게 유지할지 충분히 연구하고 교육에도 AI를 추가한다. 놀다가 잠든 나를 위해 아바타가 밤새 일하고, 스티브 잡스·빌게이츠와 같은 증강 천재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시대를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다만 그는 이런 미래가 가능하려면 협의·범용AI의 국제 기준을 만들고 기준을 적용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현재 유엔 산하의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세계무역기구(WTO)가 그것이다. 글렌 회장은 “슈퍼AI는 핵무기만큼의 파급력이 있다”며 이 체계가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연 후 나왔던 첫 번째 질문에 글렌 회장은 “안경을 쓰고 더 잘 보는 것처럼 AI로 지능도 증강할 수 있다. 물론 먼저 부유한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겠지만 가격이 내려가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20년 이상 연구했는데 결과를 들여다보면 잃는 게 심각하기는 하지만 얻는 게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미지의 세계로 넘어간다고 하면 기업가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낀다”며 “두려움을 완화하고 적응을 촉진하는 활동이 없다면 ‘사이버 헤로인’이라는 극심한 우울이나 자기 불안·혐오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NEWSHANKUK.COM, INC. ALL RIGHTS RESERVED.

^

기사 주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12002102151062001

"슈퍼시, 핵무기만큼 파급력 커... 국제기구 만들어 통제해야"

김동준 기자 blaams89@dt.co.kr | 입력: 2019-11-19 18:23

'미래학자' 제롬 글렌 회장 방한 강연
 "슈퍼시는 스스로 목표세우거나 학습
 일정수준 도달하면 인간 통제력 상실
 한국, 새기술 변화 적응하는 과정 필요"



제롬 글렌 밀레니엄프로젝트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AI)이 만드는 경제·사회의 미래'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세계경제연구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비슷한 형태의 국제적인 인공지능(AI)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롬 글렌 유엔 밀레니엄프로젝트 회장(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이 만드는 경제·사회의 미래' 강연자로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슈퍼 AI가 핵무기만큼 파급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AI 관련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가올 슈퍼 AI 시대를 지금부터라도 대비하자는 조언이다.

지난 1996년 싱크탱크 '밀레니엄프로젝트'를 세운 글렌 회장은 미래연구 분야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다. 각종 저서나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의 사회를 그려온 그는 AI를 세 가지 종류로 분류했다. 단일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협업 AI', 상황에 적응하며 새로운 일까지 찾아내면 '범용 AI', 스스로 목표를 세우거나 학습할 수 있으면 '슈퍼 AI'로 부르는 식이다. 글렌 회장은 특히 슈퍼 AI에 주목했다. 자칫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는 "언젠가 슈퍼 AI는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AI가 이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글렌 회장은 AI가 스며든 사회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진 않았다.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선제 대응할 경우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다. 그는 "AI로 만들어진 아바타가 인간을 대신해 밤새 일하고, 대신 인간이 부유해질 수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그 시간에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렌 회장은 미래의 한국 사회를 과거 경험에 빗대 전망하기도 했다. '2050년 한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는 "이른다면 30~40년 전 한국과 가나의 펀더멘털은 비슷했지만, 지금 한국은 가나보다 훨씬 더 발전한 나라"라며 "빠른 발전을 피부로 느껴온 한국은 얼마나 빠른 변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확실적인 교육 시스템은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한국은 모든 걸 배워야 하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창의성을 강조하는 핀란드 교육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글렌 회장은 향후 기술의 발전 양상은 과거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산업혁명에서 정보통신혁명으로 넘어가던 시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와 손쉽게 연결될 수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고민을 실리콘밸리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DigitalTimes All Rights Reserved.

기사 주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11902109958062005

'미래학자' 제롬 글렌 "슈퍼AI, 핵무기만큼 파급력 큰 기술"

김동준 기자 blaams89@dt.co.kr | 입력: 2019-11-19 15:43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비슷한 형태의 국제적인 인공지능(AI)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롬 글렌 유엔 밀레니엄프로젝트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이 만드는 경제·사회의 미래' 강연자로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슈퍼 AI가 핵무기만큼 파급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AI 관련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가올 슈퍼 AI 시대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는 조언이다.

지난 1996년 싱크탱크 '밀레니엄프로젝트'를 세운 글렌 회장은 미래연구 분야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각종 저서나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의 사회를 그려온 그는 AI를 세 가지 종류로 분류했다. 단일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협업 AI', 상황에 적응하며 새로운 일까지 찾아내면 '범용 AI', 스스로 목표를 세우거나 학습할 수 있으면 '슈퍼 AI'로 부르는 식이다. 글렌 회장은 특히 슈퍼 AI에 주목했다. 자칫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는 "언젠가 슈퍼 AI는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AI가 이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 글렌 회장은 AI가 스며든 사회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진 않았다.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선제 대응할 경우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다. 그는 "AI로 만들어진 아바타가 인간을 대신해 밤새 일하고, 대신 인간이 부유해질 수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그 시간에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렌 회장은 미래의 한국 사회를 과거 경험에 빗대 전망하기도 했다. '2050년 한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는 "이른다면 30~40년 전 한국과 가나의 펀더멘털은 비슷했지만, 지금 한국은 가나보다 훨씬 더 발전한 나라"라며 "빠른 발전을 피부로 느껴온 한국은 얼마나 빠른 변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은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한국은 모든 걸 배워야 하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창의성을 강조하는 핀란드 교육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글렌 회장은 향후 기술의 발전 양상은 과거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산업혁명에서 정보통신혁명으로 넘어가던 시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와 손쉽게 연결될 수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고민을 실리콘밸리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제롬 글렌 밀레니엄프로젝트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AI)이 만드는 경제·사회의 미래'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세계경제연구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DigitalTimes All Rights Reserved.

취소

인쇄하기

제롬 글렌 "10~15년 후엔 범용AI 시대...근로 인구 절반 실업자 전략 우려"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

등록 2019-11-19 오후 3:07:56

수정 2019-11-19 오후 3:07:56

김경은 기자



제롬 글렌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인공지능(AI)이 만드는 경제·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세계경제연구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0~15년 후에 범용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실업률은 10%에서 최대 50%까지 증가할 수 있다."

제롬 글렌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드는 경제·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1996년 창립한 전 지구 규모의 미래연구 두뇌집단이다. 글렌 회장은 밀레니엄 프로젝트 창립자인 동시에 미국 대표를 맡고 있다.

AI는 협의·범용·수퍼 세가지로 구분된다. 인간의 신경망으로 기계가 학습하는 수준을 '협의'라

고 하면, 범용 AI는 사람과 훨씬 비슷해져 차를 운전하고 암을 진단할 수도 약속을 잡을 수도 있다. 슈퍼AI는 인간과 분리해 독자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세운다. 글렌 회장은 협의AI만으로도 인간이 많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지만, 보편화될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적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범용AI가 도래하는 시대에는 실업률이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 50%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시대에 맞서 정부가 인간의 기본소득을 어떻게 유지할지 대비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제 기준을 만들고 기준을 적용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종합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일간투데이

HOME 4차산업 인공지능

"AI시대 정치·경제 격변 막기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해야"

글렌 CEO, "STEM·창의성 교육 통해 기술 선용할 수 있어야"
"국제기구 만들어 초인공지능 거버넌스 체제 구축해야"

이욱신 기자

승인 2019.11.19 16:44

2면



▲ 제롬 글렌(Jerome Glenn) 미국 밀레니엄 프로젝트 최고경영인(CEO)은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드는 경제·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사진=세계경제연구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융·복합되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신기술로 인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인류를 위해 선용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체제를 구축하고 창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초인

공지능으로 인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대학,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롬 글렌(Jerome Glenn) 미국 밀레니엄 프로젝트 최고경영인(CEO)은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인공지능(AI)이 만드는 경제·사회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글렌 CEO는 미래에 다가올 기술과 현상에 대해 연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퓨처링'(futuring)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래학자다. 미래연구 싱크탱크인 '밀레니엄프로젝트'를 공동 창업했다. 밀레니엄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등 인류가 풀어야 할 15가지 미래 과제를 연구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이날 글렌 CEO는 "인류는 현재 부의 집중에 따른 소득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자본과 기술의 수익률로 작업 현장에서 노동이 사라지면서 고용 없는 성장, 만성적이고 구조화된 실업이 '일상'(business as usual)이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인공지능, 로봇공학,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혁명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이제까지와 다른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인류가 이러한 신기술의 융·복합으로 인해 직면할 미래상으로 ▲잡동사니 가방(Mixed Bag) 모형 ▲정치·경제적 격변(Political·Economic Turmoil) 모형 ▲자아실현 경제(Self-Actualizing Economy) 모형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잡동사니 가방 모형은 기술 발전과 함께 인간의 어리석음(stupidity)도 같이 가는 모형으로 바이오 기술 등 선진기술 산업부문은 고용이 늘어나지만 정부가 장기 전략을 내놓지 못한 부문에서는 고실업이 만연하게 된다"며 "이 모형에서는 거대 기업이 정부 통제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치·경제적 격변 모형에서는 빠르면 2030년경 활성화될 범용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작업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충격으로 실업률은 현재 10% 수준에서 50%로 급등할 것이고 세계 정부·금융

시스템이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재정·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정치적·경제적·환경적 이유로 글로벌 이주가 진행되면서 인종적 갈등이 심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보격차로 사회가 더욱 더 양극화된 가운데 정파간 정쟁으로 인한 정치적 교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당국자들의 의사결정은 어렵게 될 것"이라며 "국가의 무능 속에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력과 정보를 독점한 거대회사, 조직범죄집단, 테러집단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경제 모형에서는 정부가 범용인공지능에 따른 실업에 대응해 기본소득 체제를 구축하고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발달된 범용인공지능을 인류의 자아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인공지능은 핵무기처럼 위험한 만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국제기구를 만들어 범용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렌 CEO는 "과거 핵전쟁과 관련된 모든 시나리오들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정확성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통해 인류에게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의 의미가 컸다"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되 비관이라는 양념이 들어감으로써 그 유용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렌 CEO는 "한국은 중국,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고 과거 산업화를 통해 빠른 변화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응한 빠른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국제적인 학력인증평가에서 한국처럼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창의성을 강조하는 핀란드의 교육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한국 교육에 대한 조언을 했다.

이육신 기자 lws@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